보 도 자 료

보도	2017. 7. 12 15:00부터	배포	2017. 7. 11(화)

책임자	금융전략실 조재린 실장(3775-9034)	작성자	조재린 실장(3775-9034)	
		홍보담당	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	총2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 개최

□ **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**이 **주최**, **금융감독원**이 **후원**하는 『**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**』 공청회가 7월 12일(수)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됨

○ 이번 공청회는 보험 표준약관의 **장해분류표 개선방안**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의 **다양한 의견을 수렴**하기 위해 개최하였음

○ **서영일 금융감독원 팀장**은 제1주제 『**장해분류표 현황 및 개선필요성**』 발표를 통해 현행 장해분류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해분류표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

○ **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**는 제2주제 『**장해분류표 개정방안 주요 내용**』 발표를 통해 현재 마련 중인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음

□ **한기정 보험연구원장**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, **장해분류표 개정**은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보험 소비자의 권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**신중하게 검토되어야** 함을 강조하였음

□ 또한, **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**는 환영사를 통해 후유장해 보험에 대한 **명확한 원칙**과 **기준**을 세워 보험이 위험보장이라는 **본연**의 **기능**을 **원활히 수행**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

< 제1주제 : 장해분류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>

금융감독원 서영일 팀장

명확하고 객관적인 장해분류표 마련 필요

□ **'장해분류표'**는 민영보험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**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**임

○ 현행 **표준약관**(생명, 질병·상해보험 등)上 **장해분류표**는 '05년에 개정된 이후 **10년 이상 변경 없이 사용 중**

□ 그러나, 현행 장해분류표는 장해 **판정기준 미비**, **의료현실**에 **부합**하지 **않거나 모호한** 장해 판정기준 등의 문제가 있음

○ 이에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장해분류표를 마련하고 '18.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임

< 제2주제 : 장해분류표 개정방안 주요내용 >

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교수

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인 장해평가 기준과 방법

□ 현재 마련 중인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은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**객관적인 장해 평가기준**과 **방법**을 **제시**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음

□ 또한, 보험소비자의 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**선택**의 **폭**을 **확대**하고 장해 지급률을 **현실**에 **맞게 조정**하였음

○ 기존의 장해평가기준에 **객관적인 장해 평가방법**을 **추가**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장해평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

○ 장해지급률의 **상하향 조정** 및 **신규 장해지급률 추가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kiri.or.kr